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태도 비교

- 전체적으로 교사(5.84점)의 직무수행태도가 일반 취업자(5.3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음.
- 교사는 일반 취업자에 비하여 직무수행태도 가운데 규정준수(0.80점)와 신뢰(0.74점)에서 크게 높으나, 열정(▽0.44점)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임. 이는 교사 직업이 고용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업무수행에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매년 하는 일이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격차는 세대별로 베이비부머 세대(0.78점)가 가장 크고, 이어서 밀레니엄 세대(0.45점)이며 엑스 세대(0.44점)가 가장 낮음.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교사 직종의 절대적인 우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주춤해지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됨.
- 권역별로 서울지역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는 교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경인·강원권(0.52점) 지역이나 충청권(0.48점) 지역에서는 차이가 뚜렷함. 이는 서울 이외 권역의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직무수행태도는 직업윤리 구성요인의 한 부분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무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 개인의 직무수행태도(one's commitment toward work)는 고용능력기술(employability skills) 또는 직업윤리(occupational work ethic/vocational work ethic)로도 불리고 있음.
 - 직무수행태도는 직업인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발달시켜야 하는 직업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과 자세로 사회와 문화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의 일에 대한 신념, 태도, 행동을 가리킴.
 - 직무수행태도는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일반 취업자와 비교하여 특정 개별 전문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전문직으로서 초·중등학교 교사는 고학력을 요구하며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직종으로 일자리 환경이나 직무특성이 서로 유사하며, 이들과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비교를 통해 교사 전문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사의 직업윤리 교육 및 훈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8)'의 설문조사와 교사 직업윤리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 분석 대상: 직업의식 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15세~64세의 취업자 중 교사 직종이 포함된 중분류(40명)를 제외한 965명과 교사의 직업윤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된 640명의 교사를 포함하여 총 1,605명의 자료를 활용



〈표 1〉 일반 취업자 및 교사 표본 구성(n=1,605)

구분		분포(명)	비중(%)	구분		분포(명)	비중(%)
성별	남자	910	56.70	직업	일반 취업자	965	60.12
	여자	695	43.30		교사	640	39.88
학력	중학교 이하	29	1.81	권역	서울권	227	14.14
	고등학교	374	23.32		경기권	601	37.45
	전문대학	195	12.16		충청권	161	10.03
	대학	709	44.2		호남권	122	7.6
	대학원	297	18.52		경상권	494	30.78
거주	대도시	741	46.17	세대	베이비부머	245	15.37
	중소도시	642	40.00		엑스(X)	714	44.79
	면지역	222	13.83		밀레니엄	635	39.84

- 측정 도구: 직무수행태도 값은 한국어판 직무수행태도 측정(Korean Occupational Work Ethic Inventory-Short Form; KOWE-SF)도구로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아니다~⑦ 항상 그렇다)를 사용한 자기 보고식임.
 - 조사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90$)은 우수하였으며, 일반인($\alpha = .90$)의 내적 신뢰도가 교사 집단($\alpha = 0.89$)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직무수행태도에서 규정준수(5.8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의와 친절(5.78점)이 높았으며, 열정(5.18점)이나 유쾌함(5.36점)은 낮은 편임.

〈표 2〉 KOWE-SF 직무수행태도 측정 문항과 응답 기술통계(n=1,605)

문항	측정 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나의 일처리는 신뢰할 만하다.	신뢰성	5.55	0.89	-0.47	3.23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편이다	열정	5.18	1.23	-0.96	4.23
나는 업무 관련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다.	지시준수	5.68	0.90	-0.49	3.43
나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효율성	5.59	0.93	-0.47	3.26
나는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바르다.	예의	5.78	0.90	-0.50	3.15
나는 주도적으로 일한다.	주도	5.45	1.04	-0.58	3.42
나는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일한다.	상황파악	5.56	0.94	-0.48	3.33
나는 업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편이다.	호감정도	5.52	0.94	-0.36	3.06
나는 유쾌한 기분으로 일하는 편이다.	유쾌함	5.36	1.03	-0.69	4.18
나는 규정을 준수하여 일한다.	규정준수	5.84	0.91	-0.57	3.20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친절함	5.78	0.90	-0.33	2.57
나는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편이다.	능숙함	5.47	0.92	-0.42	3.37
전체		5.56	0.67	-0.33	3.17

(단위: 점)

02 직무수행태도 직종 격차 전체 및 항목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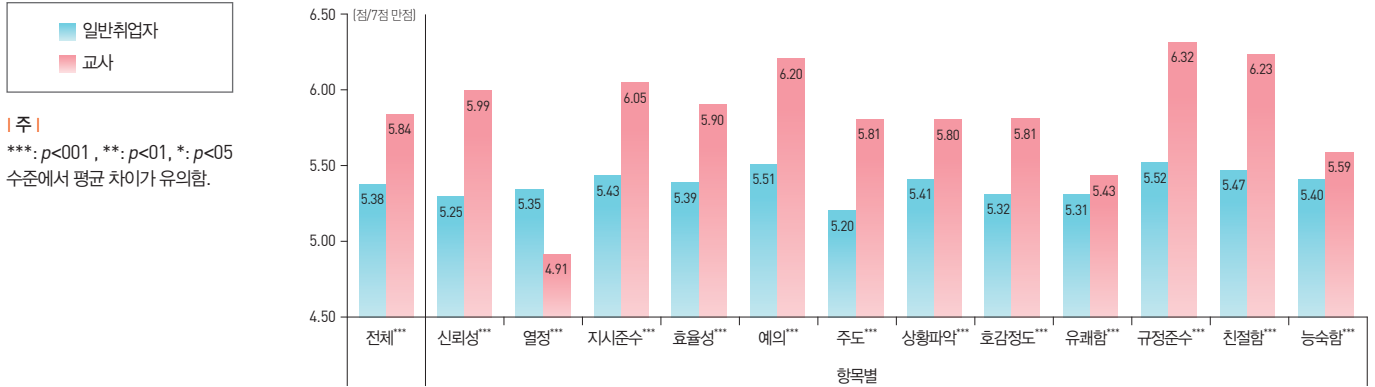
| 교사는 일반 취업자보다 직무수행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음.

- 직무수행태도 전체 평균은 5.56점으로 보통(4점)을 크게 상회하여, 우리나라 일반 취업자와 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태도를 보임.
- 일반 취업자(5.38점)에 비하여 교사(5.84점)의 직무수행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 점수 분포를 보면 교사는 보통(4점) 이하가 11.3%에 불과하나, 일반 취업자는 23.1%에 이르고 있음. 이에 비하여 6점 이상 높은 수준에 교사는 45.6%가 분포하고 있으나, 일반 취업자는 17.3%에 불과함.

| 교사는 일반 취업자보다 규정준수와 신뢰성에서 높으나, 열정은 낮음.

- 일반 취업자와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직무수행태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임.
 - 이는 교사의 99.8%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으나 일반 취업자는 38.1%만 4년제 이상 학력이고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는 학력이 높을 수록 직업 윤리가 더 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함.
- 교사 직종 종사자는 규정준수(6.32점)와 친절함(6.23점)에서 직무수행태도가 가장 높고, 열정(4.91점)과 유쾌함(5.43점)에서 가장 낮음.
 - 이에 비하여 일반 취업자는 규정준수(5.52점)와 예의(5.51점)에서 직무수행태도가 가장 높고, 주도(5.20점)와 신뢰성(5.25점)에서 가장 낮음.

-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차이는 규정준수(0.80점)와 신뢰성(0.74점)에서 가장 큰 차이로 교사가 더 높음.
- 이에 비하여 열정(▽0.44점)은 교사가 일반 취업자보다 더 낮게 나타남. 이와 함께 유쾌함(0.12점)이나 능숙함(0.20점)에서 차이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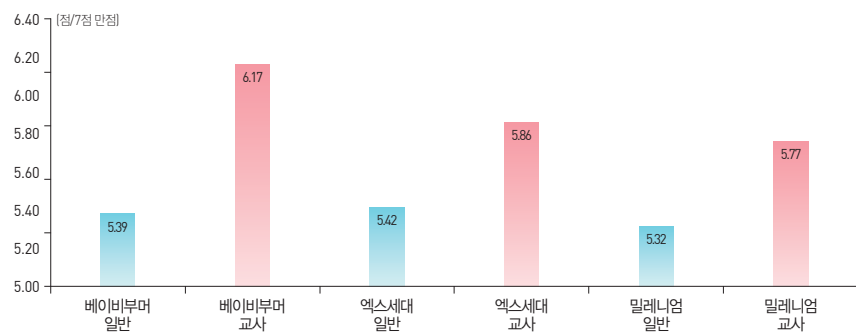
[그림 1]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태도 항목별 비교

03 직무수행태도 직종 격차 세대별, 지역(권역)별 비교

|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격차는 세대별로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가장 크고, 지역 특성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큼.

-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 엑스 세대(1964년생~1980년생), 밀레니엄 세대(1981년생~1999년생)로 구분하여 직무수행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Park & Hill, 2018).
- 직종에 따른 세대별 직무수행태도의 경우, 일반 취업자는 세대별로 직무수행태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교사는 세대별로 직무수행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베이비부머 세대 교사(6.17점) > 엑스 세대 교사(5.86점) > 밀레니엄 세대 교사(5.77점) 순으로 나타남.
- 교사의 직무수행태도가 과거에 비해 현 세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은 직업윤리는 교육과 일의 경험으로 개발되고 발달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함.
-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격차는 베이비부머 세대(0.78점)가 가장 크고 이어서 밀레니엄 세대(0.45점)이며 엑스세대(0.44점)가 가장 적음. 이러한 수치는 과거의 교사 직종의 일반 취업자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가 약간 주춤해지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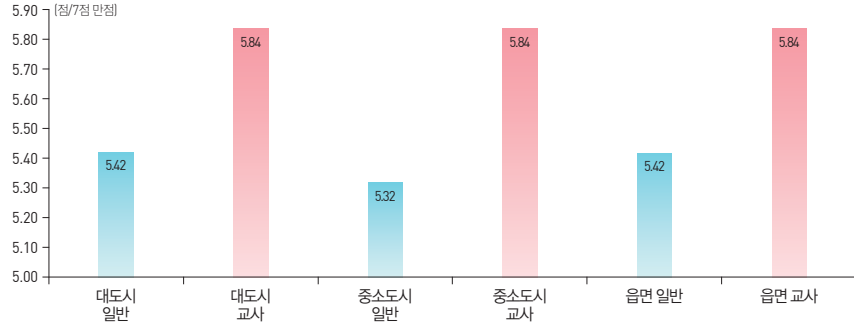
주 |
 1) F-검정 결과: $F_{(5, 1588)} = 44.83^{***}$
 2) t-검정 결과: 베이비부머 교사 vs 베이비부머 일반 $t = -7.52^{***}$, 엑스세대 교사 vs 엑스세대 일반 $t = -9.16^{***}$, 밀레니엄 교사 vs 밀레니엄 일반 $t = 9.05^{***}$, 밀레니엄 교사 vs 베이비부머 교사 $t = -3.97^{**}$
 3) $***: p < .001$, $** : p < .01$, $* : p <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



[그림 2] 세대별 직무수행태도

- 지역별로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태도는 매우 유사하며, 특히 교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
- 지역별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격차는 중소도시(0.52점), 읍면지역(0.42점), 대도시(0.42점) 순으로 나타남. 이는 중소도시에서 교사를 바라보는 지위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 해석됨.

주 |
 1) F-검정 결과: $F_{(5, 1599)} = 41.26^{***}$
 2) t-검정 결과: 대도시 교사 vs 대도시 일반 $t = 8.84^{***}$, 중소도시 교사 vs 중소도시 일반 $t = 10.20^{***}$, 읍면 교사 vs 읍면 일반 $t = 4.42^{**}$,
 3)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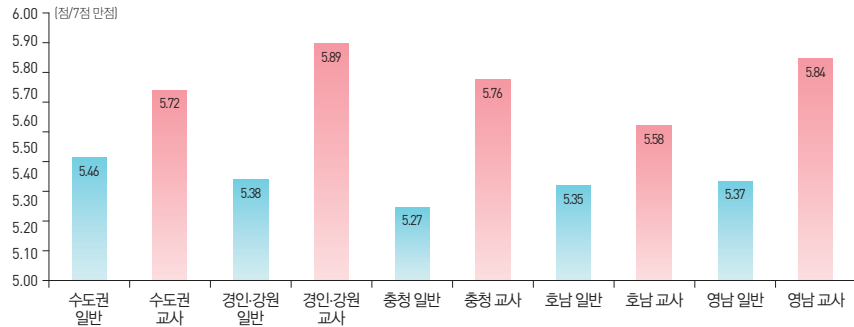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직무수행태도

권역별로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격차는 서울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경인·강원권에서 유의미하게 큼.

- 권역별로 서울권(수도권)과 호남권은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경인·강원 지역과 영남권에서 차이가 뚜렷함.
 - 권역별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 차이는 경인·강원권(0.52점), 충청권(0.48점), 영남권(0.46점) 순으로 나타남.
 - 서울권에서 두 직종 간 직무수행태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일반 취업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됨.

주 |
 1) F-검정 결과: $F_{(9, 1599)} = 23.88^{***}$
 2) t-검정 결과: 수도권 교사 vs 수도권 일반 $t = 2.24$, 경인·강원 교사 vs 경인·강원 일반 $t = 9.88^{***}$, 충청권 교사 vs 충청권 일반 $t = 4.61^*$, 호남권 교사 vs 호남권 일반 $t = 1.54$, 영남권 교사 vs 영남권 일반 $t = 8.10^{***}$
 3) $***: p < .001$, $**: p < .01$, $*: p < .05$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함.



[그림 4] 권역별 직무수행태도

04 시사점

- 교사의 직무수행태도는 일반 취업자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더 높는데, 유일하게 열정 항목에서 일반 취업자보다 더 낮음.
 - 교사는 규정준수, 지시준수, 친절, 예의와 같은 직업윤리를 더 요구하는 전문직으로 해석됨.
 - 교사의 직무에 대한 열정이 일반 취업자보다 더 낮은 것은 교사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으며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는 낮은 교육성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교사의 직무에 대한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환경 개선, 제도 마련, 교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교사의 직무수행태도가 가장 높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일반 취업자와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밀레니엄 세대 교사의 직무수행태도는 과거 세대 교사와 비교하여 직무수행태도가 낮았음.
 - 이는 직업윤리는 교육과 일의 경험으로 개발되고 발달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함. 따라서 신규 교사가 직무경력과 더불어 직무수행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직업윤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로 교사와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는 경인·강원권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서울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이는 서울권 일반 취업자의 직무수행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박 화 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